

강진아트홀서 100만 베스트셀러 '강아지똥'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원사업 작품 4편 유치 24주년 민들레포토존·클레이공작소 등 체험행사도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연극 '강아지똥'을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상연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아지똥'은 1969년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그림동화이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국내 창작 그림책 최초로 1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다. 어린이 연극의 명가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최초로 이 작품을 연극으

로 제작, 가치 없는 존재로 무시당하다가 민들레의 거름이 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피어나는 '강아지똥'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2001년 동송홀에서 처음 공연한 강아지똥은 올해 24주년을 맞이했다. 6개국(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국내외 175개 극장에서 공연되며 강아지똥은 동화를 사랑하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24년 제77회 영국 에디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아츠어워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어린이연극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렸다. 한국적 색채와 정서를 담은 무대와 의상, 음악 등 공연은 흥집을 때 없으며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강아지똥'에서 들뜬

무대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곁목길의 사계와 동화책에서 상상 속으로만 만나던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선정작인 어린이 연극 '강아지똥'에서는 민들레 포토존 및 흰둥이, 참새, 강아지똥 등 캐릭터 장신대로 공연장 모습이 아름답게 꾸며지며, 고 권정생 선생님 대역배우 조준형과 사진 촬영, 클레이 공작소 등 다양한 로비 행사를 마련해 공연장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지난 36년간 다져온 어린이 연극에 사랑이 담긴 '강아지똥'은 좌석은 1만원, 강진군민은 5000원에 관람 가능하다. 공연관람 연령은 36개월 이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

나주 삼색유산놀이, 중앙박물관 무대 오른다

나주시립국악단 문화 향연 초청 공연...오는 26일 무료관람



나주시는 나주시립국악단이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 '나주 삼색유산놀이' 초청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주의 고유한 세시풍속인 삼색유산놀이는 음력 3월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먹고 마시던 놀이 문화이다. 이차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국립중앙박물관 무대에 오른다. 농번기 시작 전,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두고 흔히 '하

전놀이', '산놀이' 또는 '유산(遊山)'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의 경우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 타령을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나주읍성에 살았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양반, 상민, 천민까지 세 계층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 놀았던 민속놀이로 여성들의 대표 축제였다. 이처럼 삼색유산놀이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했던 나주만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도군, 제주추사관서 '찾아가는 미술관'

'진도서화의 개화, 추사를 찾아서 몽연(夢緣) 전시

진도군은 예향(藝鄕) 진도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다른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미술관...진도서화의 개화, 추사를 찾아서 몽연(夢緣)'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주도의 추사 김정희 유

배지인 제주추사관에서 열리며, 진도군 남도전통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진도 출신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8~1893)의 '산수8곡병', 미산 허형의 '팔군자8곡병' 소전 순재형의 서예 작품, 남농 허건의 '소나무', 외재 허백련의 '여름 산수', 백포 객남배의 '전가풍우' 등 진도 출신 작가가 대표작 34점이 전시된다.

진도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한편, 진도군의 예술적 정체성과 깊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도의 서화(書畵)는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에게 화법을 전수받은 소치 허련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그의 후손과 제자들에 의해 대를 이어 전승되며 호남 지역 회화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소치로부터 시작된 진도 서화는 시대에 따라 주제와 감성, 기법에서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며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진도군 남도전통미술관 관계자는 "유서 깊은 예향 진도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술관을 관외에서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립미술관으로서 소장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구례 화엄사 역사·문화 학술대회 개최

'대화엄사를 세우다'...25일 화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대한불교 조계종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가 한국불교학회장(자현스님)과 공동으로 화엄사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되돌아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엄사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주제로 25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불교학회장 자현스님은 "1500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 지역의 대표 사찰 지리산 대화엄사는 연기조사가 창건한 이래

21~22대 주지 덕문스님이 교구장 소임을 회향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화엄사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와 중창조인 도광·도천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대화엄사를 세우다'와 화엄사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와 문화재의 지리적 위치의 가치를 조명하는 '호남 불교의 중심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로 나눠 진행된다.

/구례=오광범 기자

기고

봄철 건조주의 '산불조심'



정동명
/도양119안전센터장

봄철인 3~4월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등산객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나무는 3~4월 중에 수분량이 가장 적는데 다, 봄철 강풍이 자주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이렇게 산불이 반복되는 원인은 예전부터 관행처럼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사소한 원인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23년 4월 발생한 흥성 산불 등 화재의 원인은 아궁이 불씨, 담배꽂초, 쓰레기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많은 범위의 산림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월등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 보다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논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 소각은 화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겠다.

산불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산림자원 훼손만이 아닌 피해 복구에만 30년에서 1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이런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산불은 인재로 인한 경우가 많은 만큼 농민과 임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amaeil.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디제리 (031)466-100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견관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m>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화순	함평
총장.....223-4123381-5310261-9461	목포.....010-8718-1234010-2430-5055010-3616-4282
무등.....224-4188	서부.....651-0004	문흥.....261-9462	순천.....010-9656-1383	영광.....010-9860-5489	영암.....010-4604-3742
동부.....234-4235	송암.....362-4102	일곡.....573-3200	광양.....010-9656-1383	완도.....010-5066-4708	무안.....010-2050-0136
학동.....225-0651	농성.....362-4102	동문.....525-8994	파주.....010-9193-6322	장흥.....010-5665-8354	진도.....010-8525-4567
광천.....374-2120	진월.....671-7276	두암.....266-1920	담양.....010-9067-4076	신안.....010-2028-4800	해남.....010-3471-6542
화정.....374-3713	봉선.....675-5530	철단.....971-1920	곡성.....010-5602-1785	강진.....010-3608-0472	광산.....010-7613-4320
금호.....376-7153	중앙.....521-5640	신창.....955-0451	구례.....010-8597-0053	장성.....010-3610-7824	고흥.....010-4644-8383
쌍촌.....371-9584	중흥.....433-1503	월곡.....941-9174	보성.....010-3626-4776		
	양산.....574-3745	송정.....010-5524-3638			
	문암.....521-4270				